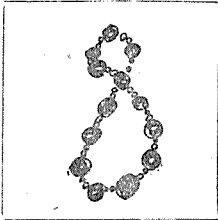


피부과에서 본

예방과 치료법



俞泰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여성에 있어 절대적인 명제인것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아름답던 얼굴에 검은 점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고민이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20세를 전후해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기미(肝斑, chloasma, melasma)는 이런 고민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것이다.

기미는 대체로 20세를 전후하여 발생하기 시작하거나 임신이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발되기도 하여 40~50대까지 지속하는 과잉 색소침착에 기인한 질병이다.

색조의 변화는 주로 흑갈색(黑褐色)의 경계가 명료한 반점으로 시작하여 서로 인근 반점과 융합, 커다란 반을 형성하는 색소 이상으로서 좌우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되 양측 관자노리, 이마, 눈밑, 볼, 코밑 그리고 아래 턱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안면의 색소침착과 함께 곱지나 소음순(小陰唇)에도 동시에 색소침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기미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바는 없으나, 임신중이나 폐경기에 잘 나타나기도 하고 난소(卵巢)의 이상 등 주로 내분비계통의 평형이상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할 때 잘 나타나며 대체로 약을 복용한 후 1~20개월 후에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나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미상이다.

그러나 피임약을 복용할 때 기미가 흔히 나타나는 것은 약 중에 함유된 「에스트로젠」(estrogen)이 색소세포인 「멜라노사이트」(melanocyte)를 자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프로제스테론」(progesterone)은 색소의 확산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약품의 투여량과 기간에 관계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원인 없이도 기미는 발생할 수가 있으며 특히 정신적인 불안이나 긴장, 불면증, 초조감 등이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어쨌던 기미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광중에 포함된 자외선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흔히 항간에서 기미라고 하면 피부의 색소침착을 일괄하여 말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죽은개(freckle)이나 「릴」씨 흑색증(黑色症) 또는 염증후(각종 화학물질이나 화장품류에 의한) 착색 등과의 감별을 요하는 것이다.

주로 얼굴과 목에, 젖꼭지와 소음순에도 생기고 원인은 아직 모르나, 경구용 피임약 먹고 잘 생겨

기미의 치료

기미를 외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앞서서 정신적인 질환의 유무를 검사하고 이를 시정하며 정신적인 안정과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일광에 노출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기미란 외부요인 보다 내적요인이 더욱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미의 외부적 치료에는 다음과 같은 치료법이 이용되고 있다.

① 화장법 : 「티타니움·다이옥사이드」(titanium dioxide)라는 광선의 투과를 차단하여 피부의 빛깔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제제가 함유된 화장품을 바름으로서 기미를 가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기미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인 미용효과밖에 없다.

② 산화제 또는 환원제 : 산화제는 「멜라닌」색소를 파괴하여 색소를 없게 하여주며 주로 과산화수소수(H_2O_2)가 이용되고 있다.

환원제는 이미 형성된 「멜라닌」색소를 환원시키므로써 색조를 없게 하는 것으로 「레몬」즙과 같은 유기산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제들이 「멜라닌」에 작용하는 시간이 대단히 느리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가 지루하고 탈색기전에 따르는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예를 들면 백반증 같은)이 발생할지 모를 위험성이 있다.

③ 표백제 : 「멜라닌」 형성기전에 관여하는 효소에 직접 작용하여 색소형성을 억제하는 제제로는 수은연고가 있다. 3~10%의 수은연고가 사용되거나 입을 통해서 흡수되거나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어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어린이에게 있어서 그 독성이 문제되고 있다.

또 「메라닌」 형성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에 대하여 독성으로 작용하고 「메라닌」색소를 파괴하여 탈색작용을 일으키는 제제로는 「하이드로퀴논」 같은 유기탈색화합물이 있다. 이 제제는 강력한 탈색작용과 동시에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고 백반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따른 농도의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사의 철저한 감독하에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제제 역시 기미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

요컨대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기미치료제라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으며 완치시킬 소 있는 약제란 아직 없다는 결론이 지배적이며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약품이 개발될 것이다.

<필자=경희대 의대 피부과 교수·의비>